

동의하고, 거절하고, 존중하는, 친구 관계 말하기



배려하면서도



할 말은 하는



친구가 되고 싶어



김시윤 글 뜯금 그림



경계선 알기

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“나에게 물어봐 줘.”

친구가 묻지도 않고 네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할까?

“나에게 물어봐 줘.”, “내 허락을 받아 줘.”라고 해.

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섭섭할까 봐 망설여질 수도 있어.

하지만 이건 네 마음이 불편한 일을 말해 주는 거야.

그래야 친구도 다음부터 조심할 수 있고,

서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지?

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“이 사진 SNS에 올려도 돼?”

사진 속 친구의 얼굴은 누가 주인이지? 바로 친구야. 그러니까 친구 얼굴이 나온 사진을 SNS에 올릴 때는 꼭 **“너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도 될까?”** 물어봐. 잘 나왔다고 생각해도 친구가 싫다고 하거나 아무 대답이 없으면 쓰지 않아야 해.



동의알기

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“이렇게 해도 될까?”

네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동생의 기분은 어땠을까?
 동생의 표정을 봐. 동생이 아무리 어려도 붙은
 동생 것이야. 네가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을 만지고
 싶다면, 먼저 물어봐야 해. ‘동의를 구한다.’라고 하지.
 “~할까?”, “~해도 돼?” 물어보고 대답을 따르면 돼.



“싫어요! 안 돼요!”

어른이 어린이에게 선물을 준다고 꼬시거나
무섭게 굴어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건 동의가 아니야.
낯선 어른, 친척, 잘 알고 지내는 동네 어른이어도
이런 행동을 한다면 **“싫어요!”**, **“안 돼요!”**
큰 소리로 말해.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, 믿을 만한
어른에게 알려.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

거절 알기

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“다음에 같이하자.”

친구가 놀자고 한 말에 그냥 싫다고 하기 보다는

“말해 줘서 고맙지만, 다음에 같이하자.”,

“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혼자 있고 싶어서 그래.”

부드럽게 거절해 봐.

나랑 같이 놀고 싶었던 친구의 마음을 존중하는 말이지.

그럼 친구도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을 거야.

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“그래, 잘 알겠어.”

친구가 거절하면 아쉬운 마음이 들 거야.
거절당했다는 게 속상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.
그렇더라도 거절을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아.
친구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이거든.
“그래, 알았어.”, “네 뜻을 잘 알겠어.”라고 말해.



“놀리지 마!”

외모나 특징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야.
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.
 그럴 때는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.
“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싫어. 놀리지 마.”,
“기분이 나빠. 그만해.” 이렇게 말아야.
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놀리고 괴롭힌다면
 주변 친구들이 그러지 말라고 함께 말해 줘.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

존중 알기

실수로 시험 문제를 틀린 날

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“있는 그대로 나는 소중한해.”

친구가 시험을 망쳤다면 위로를 해 주잖아?
나에게도 그렇게 해 줘.
무언가 잘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응원해.
이런 걸 자기 존중이라고 하지. 이렇게 말해 봐.
“항상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.”,
“지금 이대로 충분해.”,
“가끔 실수해도 나는 내가 좋아.”



“괜찮아? 속상하겠다.”

친구가 속상한 일을 말하는데,
 네가 이해해 주지 않거나 네 말만 한다면
 친구는 다음부터 속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을 거야.
 친구의 마음을 살피면서 “괜찮아?” 물어봐.
 친구가 속상해할 때 건넬 수 있는 최고의 말이지.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

“미안해. 조심할게.”

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. 실수는 어쩔 수 없지만
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.
만일 네가 친구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
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. 아주 멋진 행동이지.

“미안해. 다음부터 조심할게.”

이럴 땐 어떻게 말할까?



서로를 존중하는 동의·거절 연습하기

질문하기

1. 껴안아도 돼?
2. 손잡아도 돼?
3. 팔짱 끼어도 돼?
4. 머리 쓰다듬어도 돼?
5. 일기장 읽어 봐도 돼?
6. 휴대폰 잠깐 보여 줄 수 있어?
7. 네 사진 SNS에 올려도 돼?
8. 네 사진 다른 친구에게 보내도 돼?
9. 네 옷 빌려 입어도 돼?
10. 네 숙제 보여 줄 수 있어?
11. 네 방에서 같이 놀아도 돼?
12. 네 비밀 말해 줄 수 있어?

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,
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는 데에서 시작해.
질문과 대답을 자주 연습해 봐.

대답하기

동의할 때 하는 말

그래, 알았어. / 좋아.

동의를 받았을 때 하는 말

고마워.

거절할 때 하는 말

미안, 안 돼. / 그건 싫어.

거절을 받았을 때 하는 말

그래, 네 뜻을 존중해.